

고대부터 이어온 인간의 탐구와 문헌의 역사

- 언어학 문법은 어떻게 탄생했나?
- 문헌학 원문 복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음악학 화성과 선율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논리학 추론은 어떤 규칙을 갖나?
- 수사학 수사학은 왜 기이하게 사라졌는가?
- 시학 고전주의는 왜 곤경에 빠졌는가?
- 미술이론 세계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복제하는가?
- 역사기록학 자료 문제와 과거의 형식을 어떻게 기록하나?
- 연극학 진정 문학이론의 그늘에 연극학이 있는가?
- 매체와 문화 연구 뉴미디어에서 리좀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나?

토러스북은 인간 심리와 사회 현상의 순환을 탐구하는
인문·예술 전문 출판사이며, 토러스(torus)는 원환체를 의미합니다.

인문학 최초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학문 분야의 역사를 꿰는다!!

언어학의 파니니, 문헌학의 로렌초 발라, 음악학의 아리스토크세누스,
논리학의 오캄, 미술이론의 알베르티, 역사기록학의 이븐 할둔 ……
거대한 인문학자들의 열정과 통찰!!

- 과거의 진실 여부를 밝히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불협화음정에서 협화음정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 어떤 규칙들이 한 언어의 모든 가능한 문법적 문장들을 설명하나?
- 어떻게 현대 디지털 방법론들이 인문학의 패턴 찾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인문학자들의 통찰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수사학과 시학 이론을 '발견'했고, 아랍의 역사기록학과 그것의 정밀한 이스나드 방식을 배웠다. 또한 그리스 극 이론보다 더욱 상세한 매력 넘치는 인도의 극 이론에 관한 것을 읽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역사기록학과 아프리카 언어 전문가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용되는 인문학적 문헌비평 방식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의 분야들이 어찌서 한 번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을까? 계속해서 필자는 인문학 역사에 있는 시대, 지역, 인물과 사랑에 빠졌다.

- 저자 머리말 중에서



값 24,000원
9 791195 933020
ISBN 979-11-959330-2-0

인문학의 새로운 역사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
렌스 보드 지음 | 이강욱·허근혁 옮김

토러스북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

렌스 보드 지음 | 이강욱·허근혁 옮김

인문학의 새로운 역사

언어, 음악, 미술, 문헌,
논리, 수사, 역사기록을 포함한
인문학의 재발견



토러스북

지은이 **렌스 보드 Rens Bod**

암스테르담 대학교 디지털 인문학부와 인문학 역사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인문학을 컴퓨터사용의 측면과 세계 역사의 측면에서 동시에 연구한다. 그는 현재 '인문학의 역사' 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네덜란드 인문학과 과학 왕립학회 회원이다. 저서로는 《문법을 넘어서 Beyond Grammar》(1998), 《Probabilistic Linguistics》(2003), 《Data-Oriented Parsing》(2003), 《The Forgotten Sciences》(2010), 《The History of Knowledge》(2019)가 있다. 《인문학의 새로운 역사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영문판, 2013)는 그의 대표작으로, 네덜란드어판이 2011년에 케니스링크 Kennislink 최우수 과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8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옮긴이 **이강욱**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루앙 대학교 대학원 예술상호학 문화프로젝트 기획제작과에서 영상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인문예술교육 강사와 영화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허근혁

한국의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미국 갈아츠 필름/비디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삼성영상사업단과 EBS에서 근무하였으며, 홍익대와 한양대 등에서 영상제작 강의하였다. 옮긴 책으로는 《세계, 인간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있다.